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 배 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었다. 근대 서구문명을 받아들여 새로운 체제로 가야할 과제와 침략을 막아야 하는 이중의 막중한 부담을 안고 출발하였다. 1876년 개항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항구를 개방하여 통상수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동안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프랑스, 미국 등의 통상요구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서구 열강과의 통상 기회는 물 건너갔다. 결국 후발 자본주의 국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면서 시련의 소용돌이에 휘

근대화 과정에서 잃은 것과 얻은 것

말리게 되었다. 소위 강화도조약이라고 불리는 1876년 체결된 한일수호통상조약은 완전히 불평등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준비 안 된 미래는 희망과 보장이 없듯이 제1조부터 ‘조선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조문에 우리는 오히려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안심했지만 일본이 초강대국 무장해제를 시키려는 함정이었고,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입지를 넓히려는 계략이었다. 그 외에 3항구(부산, 후에 원산, 인천 지점)의 개방도 남의 나라 땅에서 일본의 일방적 선정이다. 조선 땅에서 일어나는 일 본인 범주를 일본법으로 처리한다는 치외법권 조항은 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다. 특히 통상조약인데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물품을 보호할 근거조차 없는 심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 6년 후(1882)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에나 통상조약에 관세율이 설정되어야 함을 뒤늦게 알았지만 많은 것을 일본에게 잃은 후였다. 한편 거세게 밀려오는 외압을 감당하려면 내부의 결속력이 필수이건만 근대

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본분열은 국가의 동력을 떨어트리는데 치명적이었다. 개화세력도, 보수세력도 나라의 앞날을 지키는다는 목표는 같았을지 몰라도 방법론에서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상대방에게 틈을 벌려 침략의 길을 열어준 모양이 되었다. 그럼에도 역사의 한편에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이 시절의 희망은 교육이었다. 오로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일념으로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필두로 민간 유지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립학교 설립 운동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뻗어나갔다. 바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애국심으로 뭉쳐 민족 운동에 앞장서고 계몽운동을 영정적으로 펼쳐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였다. 일제 식민지시대에도 3·1운동의 불꽃 같은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위한 치열한 투쟁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35년 만에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8·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된 지 내년이면 어언 70년이 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성장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의 위상을 떨치면서 오늘날의 성취가 있었다. 이 역사의 길 위에는 애국의 순국선열과 6·25 전쟁 때 목숨바쳐 싸운 전몰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분들에 대한 추념일이 현충일이고 6월은 호국의 달이다. 내 나라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이 얼마나 참담했고, 나라의 소중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임시 정부의 안살림을 도맡고 실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정경화 여사의 귀국전야의 글을 인용해 본다. “사신 연락조차 닿지 못했던 중일대륙의 흠바람이 휘몰아칠 때, 손가락 같이 굵은 빗줄기가 전형인 듯이 쏟아져 내려와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을 때 그래서 서글프고 쓸쓸할 때마다 늘 생각이 사무치던 곳 그 곳이 내 나라였다. 내 조국이었다. 그렇게 조국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어린 아이가 집 밖에 나가 놀 때도 어머니는 늘 집 안에 계시듯이 조국은, 잃어버렸던 조국은 그렇게 있었다.”

의료칼럼

발 건강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



박 영 훈 동아병원 관절센터 3정형외과 원장

발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이란 무엇이며,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무지외반증이란 주위에서 한뼘쯤은 벗을 법한 흔한 질환으로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것을 말한다. 엄지발가락이 휘고 불이 넓어지며, 발 안쪽이 튀어나오게 되면 발 모양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발에 통증과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무지 외반증이 생기면 걸을 때 발 앞쪽으로 전해지는 하중을 엄지발가락이 받지 못하게 되고,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다양한 힘줄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발의 기능장애와 변형을 더욱 가속시키게 된다. 가축력, 평발, 체중증가, 발의 근력약화 등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중요하고 밀접한 원인은 불이 좁고, 굵이 높은 신발로 인한 엄지발가락의 반복된 외상과 자극을 들 수 있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튀어나온 발 안쪽부분이 신발에 닿거나 반복된 자극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붓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진행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도 변형이 생기고, 변형된 발가락의 발등 부분에 굳은살이 생긴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보행 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여 다른 발가락으로 하중이 많이 전달되므로 발바닥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팽이나 굳은살 등이 발생한다. 결국 신발을 신기가 힘들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며, 서있거나 걷는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변형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및 중증도로 구분합니다. 무지 외반증이 발생하면 변형이 저절로 교정되지 않고, 활동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변형은 심해지고 증상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무지외반증의 경우 하이힐 같은 신발은 피해야 하며, 불이 넓고 굵이 낮으며, 바닥이 폭신한 편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엄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증상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발 안창이나 교정 보조기 등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변형 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의 형태를 실제로 교정하는 것은 수술만이 가능하다. 통증과 변형이 심할 때, 증상이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교정 수술이 필요하며, 변형된 발 모양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도 수술이 도움이 된다. 무지 외반증의 심한 정도 및 동반된 증상에 따라 정확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등도 이상의 변형이라면 증상이 없더라도 무지외반증이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족부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기 고



김 남 호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장

연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종교, 예술인을 가장한 사악한 기업주의 탐욕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순수하다 못해 가늠될 수없는 어린 학생들을 불법증축한 여객선과 함께 수장시켜 버렸고, 그 광경을 생중계를 통해 목격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삶은 자존심도 여지없이 같이 침몰해 버렸다. 사고발생이래 40여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부와 사법당국은 사고의 최종책임자에 대해 단죄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공개수배를 내리는 등 부산하지만 설령 사

세월호 침몰사고와 특례보증

악한 기업주와 그 일가를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처분한다 하더라도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다시 살려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보낼수는 없는 것이며, 여객선과 함께 가라앉은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쉽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교육과 일상을 통해 반복하고 체득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이 대목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있고 용기있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다. 이번에 사고난 맹골수도(水道)는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제도 사이에 있는 바닷물길로 이 섬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듯이 조류가 세기로 유명해 해수의 흐름을 이용해 발전하는 조류발전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며 위험한 곳에서는 도전하고 경험장은 숙련자가 항해를 담당했어야 하는 정

말로 안따까운 느낌이 드는 부분이다. 진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된 “진도 씨갭굿”이 있다. 생전에 풀지 못했던 죽은 사람의 소망이나 원망 등이 될 것을 씻어내고 영혼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보내는 굿이다. 굿은 밤새 이어져 씨갭굿이 끝나고 새벽이 올 때 즈음에는 씻겨진 것이 죽은이의 넋만이 아니고 중간중간 슬픔에 목놓아 울고, 장단을 맞추고 소리도 지르며 굿을 지켜보던 산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결에 후련히 씻겨 진다고 한다. 이 씨갭굿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서로를 씻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의식인 것이다. 아직까지 행방을 모르는 실종자들이 다 수배되는 적당할 때를 찾아 가해자와 희생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한번 흐드러지게 씨갭굿을 해야할 이유인 듯싶다. 이러한 시기에 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이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

원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승선자, 가족 등)가 운영하는 기업체는 물론 사고의 여파로 수확여행 등 단체여행 취소로 영업에 차질이 빚은 여행, 운송업 영위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중에 있다. 아무쪼록 세월호 침몰로 인해 국가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실의에 빠질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한시 그래왔듯, 아프고 쓰리지만 실패와 좌절을 반면교사 삼아 평행선을 가득 채우는 기분을 다시 배우고, 탐욕과 사욕을 서로가 조금씩 내려 놓음으로써 공생과 배려의 지혜를 배워야 무리 센 파도와 비바람에 맞닥뜨리더라도 끄덕없는 튼튼한 대한민국號를 만들어 안전하면서도 여유있게 항해할 것을 기대해 본다.

담배 불씨 날려 위험한 ‘보행중 흡연’ 자제해야

두 살짜리 아기를 유모차에 싣고 쇼핑을 가기 위해 집밖으로 나왔다. 멀리서 남자 두 명이 걸어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가면 그 담배연기를 나와 아기가 다 마실것 같아 멀어질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에 아이의 유모차를 끌고 갔더니 두 남자가 여전히 담배를 피우면서 신호등 앞에서 서 있었다. 어쩔수 없을듯 해서 역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는데

아이 가 갑자기 울음보를 터트렸다. 우리 육을 때도 아인데 왜그럴까 싶어 아이를 달려주려고 토닥거리다 보니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아이가 손으로 거기를 자주 부벼댔다. 간지러운듯 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이 옷자락에 담배재가 있는게 아닌가. 나는 경악했다. 그 두남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손가락으로 아무 생각 없이 툭툭 쳐서 버

린 담배재가 날라와 아이 눈에 들어간 것이다. 아이를 달려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속상했는지 모른다. 일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가 떠올랐다. 남자가 걸어가면서 담배 한모금 쪽 빨아들인 뒤 담배를 쥔 오른손을 입에서 내리는 순간 그 뒤를 걸어가던 초등학생 눈을 그대로 친 것이다. 오른손 손가락에 낀 뜨거운 담배불이 초등학생 눈에 쏘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학생은 불행하게도 실명했고, 일본의 자치단체는 즉시 조례를 고쳐 길거리

보행시 흡연을 금지시켰다. 그후 현재까지 일본은 길거리에서 보행중에도 흡연을 못하게 만든 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아이에게 들어간 담배재도 불씨가 없는 담배재이기 망정이지 불씨가 있는 담배재였다면 아이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금지시킬수 없는지, 그리고 흡연자들이 보행 중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정순례·광주시 북구 대촌동

社 說

朴 정부의 무능·무기력 심판한 6·4선거

6·4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의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일 새벽 현재 8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해 민심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애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새누리당 후보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권의 인천을 탈환하고, 차치 뒷발을 내줄 뻔했던 부산을 지키면서 선선했던 셈이다. 특히 이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고, 위기의 정국을 수습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권의 아성인 대전을 내주고 세월호 사고 이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웃돈데다, 새누리당의 지지율 역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2배 이상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에 따른 적폐(積弊) 등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 역시 세월호라는 호재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인천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 지지율이 20% 선을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새로 확보하고, 전라공천지역인 광주를 사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이 들고 나왔던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위기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통치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정부에 내재된 적폐를 걷어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데 혼신을 쏟아야 한다. 또 국무총리와 내각 인사에서는 대타협에 걸맞은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선거에 담긴 민의를 깊이 새겨 그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주어진 과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가 예상과는 달리 무난히 당선됐다. 선거 전 무소속 강은태 후보에게 열세에 놓였던 윤 후보는 투표 집계 결과, 강 후보를 2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새로운 광주시장에 등극했다. 선거기간 내내 지지도에서 강 후보에게 뒤졌던 윤 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 논란에 휩싸인데다 두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점차 지지를 만회하며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윤 후보의 당선은 그가 시민운동가로서 평생 광주를 위해 헌신한 점도 작용했으나 광주시민의 전략적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가 강 후보와 전략공천을 한 안철수 대표와의 승부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시민들은 윤장현 후보가 패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서 안 대표에게 미치지 못할까봐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는 악영향까지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안방에서 참패라는 책임론 대두와 함께 안 대표의 정치생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정치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이제 윤장현 당선자는 눈앞에 놓인 과제부터 풀어가야 한다. 우선 들로 나뉜 지역 여론의 분열상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선거 당시 그를 도왔던 인사나 조직을 배제시키고, 능력 위주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 시장 취임 전 그들을 보는(報慰) 표지 낙하산으로 편입한다면 새 정치의 표징을 윤 당선자로서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행정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도 만들 필요가 있다. 각계의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를 시장 직속에 두고 수시로 고견을 청거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제2의 박원순이 되기를 거듭 당부한다.

無 等 鼓

‘살아서 6년, 죽어서 600년 조선을 다스린 남자’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개국 공신이다. 하지만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흥선 대원군에 의해 복권되기까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비운의 인물이자 드라마틱한 인물이었다. 정도전은 고려 우왕 때 원나라 사신 불어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에서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중에 있다. 아무쪼록 세월호 침몰로 인해 국가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실의에 빠질때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한시 그래왔듯, 아프고 쓰리지만 실패와 좌절을 반면교사 삼아 평행선을 가득 채우는 기분을 다시 배우고, 탐욕과 사욕을 서로가 조금씩 내려 놓음으로써 공생과 배려의 지혜를 배워야 무리 센 파도와 비바람에 맞닥뜨리더라도 끄덕없는 튼튼한 대한민국號를 만들어 안전하면서도 여유있게 항해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지지함으로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에게 직접 살해당하게 된다. 이후 이방원은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켰다. 이후 흥선 대원군이 복권시켜 주기까지 500여 년의 시간을 아둠 속에 묻히게 된다.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은 특히 그의 마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나주로 금의 자리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말을 덧붙였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정치는 설 대가 없다는 ‘경국’(經國)의 조건을 말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이 혹은 시·도민이 주인 되는 정치 실현을 주장한다. 이제 선거는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이 투표 전과 같이 국민과 시·도민을 주인으로 삼길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정도전의 ‘경국’(經國)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